



무등雪山... 오늘부터 강추위 27일 무등산국립공원 정상부가 하얀 눈으로 뒤덮여 한겨울의 정취가 물씬 배어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8일부터 광주·전남에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추위는 주말인 31일부터 서서히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7면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운영비 보장→투자비 보전’ 변경 1구간 혈세 1000억 절감 제2순환도로 전 구간 보조금 재협상 나서야

‘혈세먹는 하마’인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식이 최종 변경되면서 1000억원 이상의 재정 절감효과가 전망된다.

이에 따라 혈세가 투입되는 나머지 구간에 대한 재(再)구조화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소 운영 수입보장방식’(MRG)을 폐지하는 대신 ‘투자비 보전방식’(대안적 MCC)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변경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즉각 맥쿼리가 100% 출자한 자회사인 ‘광주순환도로 투자주식회사’와 실시협약 변경을 완료하고 새로운 보조금 지급 방식 적용에 들어갔다. 시는 그동안 운영수입이 추정통행량의 85%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분 만큼을 혈세로 충당해왔으며, 규모는 매년 200억원, 2028년까지 369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투자비 보전방식은 운영수입이 실제 사업운영비에 미달분 만큼을 지원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시 부담액 1014억원 정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6월 보조금 지원방식 변경이 최종 타결됐으나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보고와 시의회 동의안 등의 행정처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최

근 맥쿼리측과 최종 협약 변경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 변경에 따라 광주시는 맥쿼리에 내린 ‘실시협약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취소 절차를 진행중이며, 맥쿼리측도 “시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의회 주경남(민·서구4) 의원은 27일 열린 제254회 제1차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재구조화를 위한 변경실시협약을 토대로 나머지 구간도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협상에서 제외된 3-1구간은 지금까지 예상통행량 대비 실제 통행량이 54.7%에 불과해 재정보전액은 700억 원을 넘어 1구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시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1구간은 최대주주인 맥쿼리가 7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또 2007년부터 운영대는 4구간은 예상 통행량 대비 실제 통행량이 평균 78.9%에 달해 재정보전금액이 52억에 불과하다. 하지만, 2005년부터 1700억원이 투입돼 2018년 개통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남산단 외곽도로’가 개설되면 현재 통행량의 30%가 줄어 연간 50억원에 달하는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맥쿼리와의 MGR(최소 운영수입 보장제) 방식을 바꾸는 재구조화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정 역사교과서 1년 유예...사실상 폐기

교육부, 현장 적용 2018년 3월로...최종 결정 차기 정부로 넘겨
광주 등 시·도 교육감들 “학교 현장에 발 못붙이게...당장 폐기”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전면 적용 시기가 당초 내년 3월에서 2018년 3월로 1년 연기되고, 학교 선택에 따라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혼용해 사용하게 된다.

대신 내년 3월부터는 희망하는 학교를 우선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내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중·고교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단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사용한다는 ‘국정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따라서 2018년 국정교과서의 실제 사용 여부는 차기 정부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적

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2017학년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중·고교 역사교과서 적용시기를 1년 늦추는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다시 고시하고, 2018학년도에는 각 학교가 국정교과서와 새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검정교과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검정도서의 개발기간이 1년 6개월이라고 돼 있으나 이 역시 1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에 대다수 시·도 교육감들은 “미봉책”이라며 반발했다. 정위국 광주시교육감은 “진일 독재를

미화하는 국정교과서는 전면 폐기해야 한다”며 “현장에 1년 유예를 한다는 것은 핏수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국정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역량과 수단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정역사교과서 관련 정책이 학교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은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구매 대행 업무를 거부하는 한편, 역사교과서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추진하고, 수업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중학교 1학년은 역사 수업을 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이어 고교 1학년도 주문을 취소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지욱기자 dok2000@연합뉴스

현재, 빨라지는 탄핵심판...1월 3일 첫 변론

박근혜 대통령 불출석할 듯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본격 심리하는 첫 변론을 다음달 3일 열기로 했다. 이어 2번째 변론 기일도 내달 5일로 미리 잡아 심리 진행이 속도감 있게 전개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현재는 27일 2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의견을 들은 뒤 첫 변론 날짜를 내달 3일로 정했다.

현재는 30일 한차례 더 준비절차 기일을 열어 3차 준비절차에서 남은 쟁점과 논의 사항 등을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2차 변론기일은 내달 5일로 미리 확정했다.

준비절차 진행을 맡은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등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은 이날 양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토대로 양측 주장의 쟁점을 명확히 하는 등 변론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이정미 재판관

은 “증거신청과 추가 의견을 가급적 모두 담아 다음 준비절차 기일인 30일 이전에 제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대통령 측은 “법률적으로 출석 없는 진행이 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현재 관계자는 “현재가 두 번째 변론기일을 미리 잡은 것은 박 대통령의 불출석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새해 달라지는 시책 ▶5면
광주 야구의 거리 주민 손으로 ▶6면
시간속으로 이젠 남도를 걷는다 ▶18면
KIA 타순 짜기 ‘행복한 고민’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50
-YEAR
Ginseng Research

Sulwhasoo

**피부 자생력과 방어력을 키우는 인삼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다**

설화수 자음생크림

천천히 변화를 겪는 피부는 어느 순간 크게 힘을 잃습니다
피부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전하는 설화수 자음생크림
인삼 꽃의 응축된 힘으로 방어력을 강화해 피부 손상 예방에 도움을 주고 인삼 뿌리의 강력한 효능 성분으로
피부의 자생력을 높여줍니다. 더욱 강화된 인삼결정체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세요

· 1966년 설화수 브랜드의 모태인 ABC인삼크림이 탄생되었으며, 이후로 50년간 인삼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유명화학자이나미노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